

예방적 측면에서 본 일본 청소년의 약물남용자의 특징
- 약물남용자와 비남용자의 비교 연구 -

오 학

(동경대학 대학원 의학부 보건사회학과)

목 차

| | |
|----------|---------------------|
| I. 서 론 | III. 결과 및 고찰 |
| II. 연구방법 |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I. 서 론

약물남용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요람인 유기용제 남용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그다지 중요시 되고 있지 않으나 헤로인, 대마, 코카인 등에 의한 약물남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¹⁾

본래, 유기용제는 도장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병으로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주목되었으나, 약물남용 문제로 대두 된 것은, 미국에서 Peters에 의해 남용 소녀 사례가 최초로 보고 되고, 집단 유기용제의 남용이 유행 현상으로서, "Glue Sniffing"이라고 불리워지는 증기 흡입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유기용제 남용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2,3)}

한편, 일본에서는 1967년경 부터 청소년에 의한 이른바, "신나 놀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급기야 1972년에는 "독물 및 극물 취급법"이 개정 되어, 유기용제 남용 대책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2년만 해도 검거된 청소년은 2만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⁴⁾. 범죄백서⁵⁾에 의하면 유기용제 남용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9.4% 감소 되었다고 보고 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실제 청소년들의 유기용제 남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대표하는 유기용제 남용은 청소년 문제 중의 하나이며,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남용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 범죄, 자살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기용제의 특징은, 기도를 통해 생체내에 들어와 혈액과 뇌에 침입해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 또한 유기용제를 흡입하면, 일반적으로 마취도입 과정에서 오는 흥분기와 같이, 자기 통제가 소실된 상태로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⁶⁾. 예를 들면, 1987년 나고야(名古屋)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유기용제를 남용한 폭주족들에 의한 "아벡크 살인 사건"과 코베

(神戸) 시내에서 유기용제 남용자에 의해 5세의 어린아이가 유괴되어 살해된 사건들은 기억속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⁷⁾. 그리고, 신나 등의 유기용제는 최근에도, 각성제와 나란히 폭력단의 중요한 약물 관련 자금원으로서, 폭력단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불법의 약물남용을 근절시키는 것이 더욱 더 곤란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⁸⁾.

특히, 하라다(原田)⁹⁾에 의해 청소년들의 최초 약물남용 시기는 중학교 2·3학년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약물남용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인격¹⁰⁾이나 임상적인 측면¹¹⁻¹³⁾을 중심으로 실시한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약물남용의 개시 연령으로 알려져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자와 비남용자의 비교를 통해 약물남용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다음의 3가지 점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① 신뢰성을 검토한 각각의 척도를 가지고, 일반 중학생과 교호원*1)생 각군별로 약물남용, 비남용자의 배경과 의식의 비교를 통해 약물남용자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한다.

② 교호원생 중에서 약물남용자의 약물남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다.

③ 이상의 점들의 검토를 통해, 이제부터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실마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약물남용자는 “한 번이라도 의학적 인 목적 이외로 약물을 인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자들”로 정의한다. 또한, “Family Environment Scale(Moos등¹⁴⁻¹⁶⁾: 1986, 이하 FES로 약칭 함)” “가족과의 관계” “학교 생활” “학교 외에서의 친구와의 관계”를 배경이라고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Self-Esteem중에서 General Self Subscale(Coopersmith¹⁷⁾: 1956, 이하 Self-Es-

teem으로 약칭 함)”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장래에 대한 의식”의 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일반중학교 대상의 조사

일본의 동경도 내에 주재하고 있는 4개의 공립 중학교 전 중학생 964명을 대상으로 1993년 9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일 결석자 및 무회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효 회답자는 894명(92.7%)이었다.

2) 교호원생 대상의 조사

1993년 7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일본 동경도 근교에 주재하고 있는 3개 교호원의 전교호원생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와 함께 개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일 외출자를 제외하고 131명 분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이므로 그 중에서 중학생이 아닌 자로부터 회수한 설문지와 무회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106명(74.6%)으로부터 유효 회답을 얻었다. 따라서, 전 대상자 1,106명 중에서, 1,055명 분을 회수하여, 유효회답자 수는 1,000명(90.4%)이었다.

2. 연구도구

일반 중학생 및 교호원생의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속성 ② Moos가 작성 한 FES(가족 환경 척도)중에서 Cohesion(응집력), Conflict(갈등성), Organization(조직성), Control(관리성) 각 9문항씩 ③ 가족 관계 10문항 ④ 학교 생활(학교 내의 교우 관계, 규칙 준수, 선생님과의 관계)및 학교 외의 친구 관계 46문항 ⑤ Coopersmith의 Self-Es-

*1)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 불량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위험이 있는 아동을 집단수용하여 교화시킬 목적으로 세운 시설중의 하나.

teem Inventory 중에서 General Self Subscale 26 문항 ⑥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12문항 ⑦ 장애에 대한 의식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 교호원생의 개인면접 내용은 사용해 본 약물명, 약물남용 시기, 남용 계기, 타인을 유혹한 경험 유무, 남용 빈도, 약물을 끊은 회수, 남용 계속 이유, 누구와 함께 남용하는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동경대학의 대형계산기 센터의 통계 Package인 SPSSX를 가지고 이하 3단계의 분석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1) 1단계

일반 중학생 894명을 대상으로 8개의 척도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2) 2단계

검토한 Subscale를 가지고, 일반 중학생 중에서 약물 비남용군(이하, 비남용 중학생으로 약칭함)과 약물남용군(이하, 남용중학생으로 약칭함), 교호원생 중에 약물비남용군(이하, 비남용교호원생으로 약칭함)과 약물남용군(이하, 남용교호원생으로 약칭함)으로 나누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3) 3단계

비남용 중학생을 기준으로 남용중학생 및 교호원생의 비교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남용·비남용교호원생의 비교 분석을 T-test에 의해 실시하였다. 각 군간의 비교 결과를 알기 쉽게하기 위하여, 비남용

중학생의 득점을 일직선으로 표시하여, 다른 군, 즉, 남용중학생군, 비남용교호원생군, 남용교호원생군의 차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각 척도의 표준 득점(Standard Score)을 계산하였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Standard Score} = 50 + \frac{\text{각군의 평균치} - \text{전체 회답자의 평균치}}{\text{전체 회답자의 표준편차}} \times 10$$

그리고, 비남용중학생의 각 Subscale에 대한 득점을 전부 50점으로 하고, 원래의 표준득점으로부터의 차를 전 군의 득점에서 뺀 값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약물남용 여부는 표 1과 같다. 일반중학생 중에 남자가 461명(51.6%), 여자가 414명(46.3%), 성별 불명이 19명(2.1%)으로, 일반 중학생의 합계는 894명이었다. 그중에서 남용 중학생은 여자가 5명, 남자가 19명으로 총 24명(2.7%)이었다. 교호원생 중에 남자가 82명(77.4%), 여자가 24명(22.6%)로, 전체 교호원생은 106명이었다. 그 중에서 남용교호원생은 41명(38.7%)으로 여자가 11명, 남자가 30명이었다. 또한, 부모가 두 분 다 계시는 경우는 일반 중학생이 88.1%이고, 교호원생은 53.8%이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일반 중학생이 95.9%이고 교호원생은

표 1. 대상자의 남녀 분포

| | 일반중학생 | | 합계 | 교호원생 | | 합계 | 총계 |
|------|---------|--------|-------|---------|---------|-------|------|
| | 비남용자 | 남용자 | | 비남용자 | 남용자 | | |
| 남자 | 442 | 19 | 461 | 52 | 30 | 82 | |
| 여자 | 409 | 5 | 414 | 13 | 11 | 24 | |
| 성별불명 | 19 | 0 | 19 | 0 | 0 | 0 | |
| 합계 | 870 | 24 | 894 | 65 | 41 | 106 | 1000 |
| (%) | (97.32) | (2.68) | (100) | (61.32) | (38.68) | (100) | |

74.2%이며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중학생이 4.1%, 교호원생이 26.3%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일반 중학생과 교호원생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2. 사용한 척도의 신뢰성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에 FES는 회답자의 주관과 인지에 의해 가족 환경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미국에서는 건강관리 영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10개의 Subscale로 구성되어 각 Subscale은 9문항씩이며 총 90문항의 척도이다. FES는 일본에서 가와구찌(河川)¹⁸⁾와 노구찌(野口)⁹⁾에 의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나, 10개의 Subscale

중에서 독립성, 도덕, 종교의 강조성, 달성 지향성은 Cronbach 계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Subscale 중, 예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과 일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설문으로 고려되는 지적, 문화적 지향성, 활동 레크레이션 지향성, 표출성을 제외하고 4개의 Subscale을 선택하여 가일어로 표준화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 선택한 4개의 Subscale은 Cohesion(이하, 응집력으로 표기함), Conflict(이하, 갈등성으로 표기함), Organization(이하, 조직성으로 표기함), Control(이하, 관리성으로 표기함)이다. 4개의 Subscale에 대한 개념은 표 2와 같다.

표 2. FES의 Subscale에 대한 개념

| FES의 Subscale | 개 념 |
|-------------------|---|
| 응집성(Cohesion) | 가족내의 일체감, 서로 돕고 지지해 주는 정도를 나타냄 |
| 갈등성(Conflict) | 표면에 나타난 가족의 갈등으로서, 가족간에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나 싸움을 하는 정도를 나타냄. |
| 조직성(Organization) | 집안일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사와 가족 여행등, 가족끼리 행하는 활동 내용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 중요시 하는가를 나타냄 |
| 관리성(Control) | 가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정내에 규칙이나 약속이 어느 정도 있는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등 가장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나 규칙의 강약을 나타냄. |

또한, 표준화된 Self-Esteem은 자존 감정, 자기 평가, 자기 가치 등 일어로 번역²⁰⁻²⁵⁾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개인의 행동과 적응 양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Self-Esteem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Self-Esteem은 자기 개념을 나타내는 가치적 감정이며 자기를 어느 만큼 가치가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末永²⁶⁾는 낮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논하고 있다. 더우기, 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가, 높히 평가하고 있는가, 또는

낮게 평가하거나, 열등감이나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괴로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Self-Esteem에 대해 Rosenberg척도²⁷⁾, Janis척도²⁸⁾, Coopersmith척도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정 영역의 반응을 알아 보는데 적당한 Coopersmith척도를 가와구찌(河川)²⁹⁾가 일어로 표준화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FES와 Self-Esteem은 일본에서 충분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것들 이외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6개의 척도에 대해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회답이 많은 문항과, 문항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0.2이하의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의 해석을 쉽게하기 위해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요인에 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요인 적재량이 큰 문항을 참고로 각 요인에 대한 명칭을 정했다. 그리고, 해석이 곤란한 문항은 제외하고, 남은 문항을 가지고 Subscale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내고, 남녀별로 차를 검토한 후, 표 3과 같은 각 하위척도(Subscale)를 채용하였다.

표 3. 각 척도의 남녀별 평균특점과 신뢰성 계수

| | 남자 평균치 | 여자 평균치 | Cronbach's α |
|-------------------|--------------|--------------|---------------------|
| 가족환경 | | | |
| 옹 집 성 | 5.00(±2.51) | 5.20(±2.49) | 0.76 |
| 갈 등 성 | 3.08(±1.96) | 3.29(±2.02) | 0.60 |
| 조 직 성 | 4.33(±2.06) | 4.73(±2.01) | 0.56 |
| 관 리 성 | 3.44(±1.79) | 3.32(±1.97) | 0.52 |
| 가족관계 | 6.51(±2.68) | 7.13(±2.33) | 0.82 |
| 학교생활 | | | |
| 학교내 교우관계 | 3.79(±1.62) | 4.52(±1.06) | 0.82 |
| 규칙준수 | 4.32(±1.74) | 5.18(±1.51) | 0.62 |
| 선생님과의 관계 | 3.19(±1.47) | 2.78(±1.59) | 0.62 |
|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 3.96(±1.29) | 4.41(±1.05) | 0.82 |
| Self-Esteem | 14.67(±4.61) | 13.76(±4.47) | 0.77 |
|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 13.67(±1.95) | 13.83(±1.62) | 0.68 |
| 장래의식 | 7.54(±1.37) | 7.62(±1.29) | 0.59 |

3. 각 군별의 비교

여자의 경우는 표 1와 같이 비교 분석을 하기에 약물남용자 수가 너무 적어서, 약물남용자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석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남자 대상자만을 가지고 각 군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득점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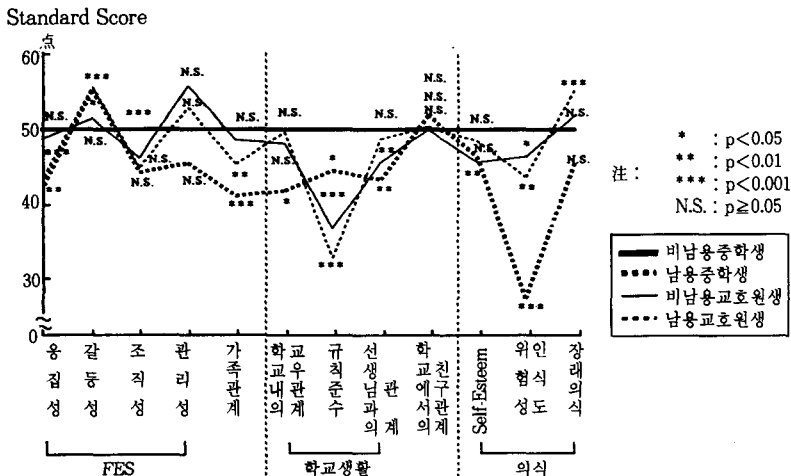


그림 1. 비남용 중학생을 기준으로한 각 군간의 비교

1) 일반 중학생군과 교호원생군 별 남용·비남용 자간의 비교

배경: 일반 중학생의 경우, 남용중학생군이 FES 중에서 “갈등성($p < 0.05$)”이 높고, “응집성($p < 0.01$)”의 득점이 낮았으며, “가족 관계($p < 0.001$)” “학교 내의 교우 관계($p < 0.05$)” “규칙 준수($p < 0.05$)” “선생님과의 관계($p < 0.01$)”는 낮은 득점을 나타냈다.

교호원생의 경우, 남용 교호원생이 “응집성($p < 0.01$)” “규칙 준수($p < 0.01$)”의 득점이 낮았다.

의식: 일반 중학생의 경우, 남용중학생군이 “약물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p < 0.01$)”가 낮았으며, 교호원생의 경우는 남용교호원생군이 “Self-Esteem($p < 0.01$)”에 있어서 높은 득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일반 중학생과 다른 군간의 비교

(1) 남용자군과의 비교

남용중학생과 남용교호원생은 공통으로 “응집성($p < 0.01$)” “가족과의 관계($p < 0.001$)”, “약물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p < 0.001$)”가 낮고, 갈등성($p < 0.05$)의 득점이 높았다. 앞에서 논술한 것처럼 “응집성”은 가족내의 일체감, 서로 돕고, 지지해 주는 정도를 나타내며, “갈등성”은 가족끼리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며, 어느 정도 싸움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FES중에서 “응집성”이 낮고, “갈등성”이 높다는 점으로부터, 가족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결여와 인간 관계의 빈약성이 약물남용군의 가족 환경 및 가족 관계의 특징으로 시사된다. 이것은 “가족 관계”의 득점이 낮다는 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 내의 문제는 약물남용을 일으키게 하는데 관련이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 가족 내의 커뮤니케이션의 빈약화가 청소년들의 정신 발달에 미치는 위험성에 관해서는 이미 1970년대, Kosten³⁰⁾과 Stern³¹⁾에 의해서 경험적, 기술적으로 논술되어 지고 있다. 또한, 사이토³²⁾에 의한 일반가족과 알코올 문제 가족과의 비교 연

구에서도 알코올 문제 가족이 “응집성”이 낮고, “갈등성”이 높은 것으로 약물남용 가족 환경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 이외에도 약물남용군의 경우에서, 가족 내에 많은 문제의 내제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³³⁻³⁶⁾

(2) 교호원생과의 비교

교호원생의 경우는, 공통으로 “규칙 준수($p < 0.001$)”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p < 0.01$)”의 낮은 득점을 나타내었다. 전술한 것처럼 “규칙 준수”는 남용중학생의 경우에도, 낮은 득점을 나타낸 점으로부터, “규칙 준수”는 약물남용군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비행 그룹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는 또한, 남용중학생에게서도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용중학생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이 교호원생군이 남용중학생군보다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의 득점이 높은 것은 교호원의 정상시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중학생의 경우에도 약물남용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교호원의 약물남용자의 면접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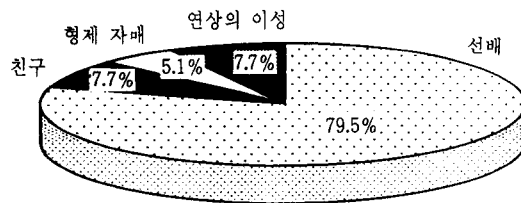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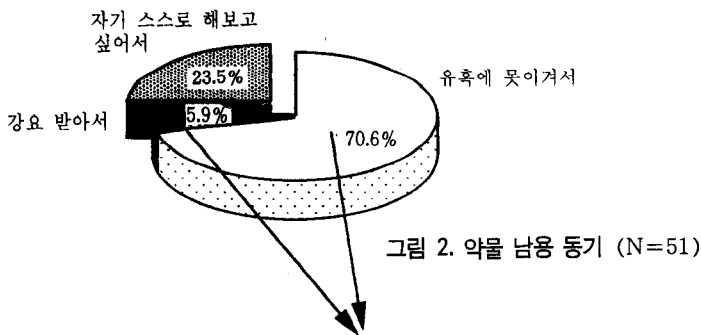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면접 조사 결과는 약물남용·비남용자의 비교 분석을 위함이 아니라, 약물남용자의 남용 생활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남용교호원생 전체 5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약물남용 개시 시기는 국민학교 6학년(19.6%)부터, 중학교 1학년(41.2%)까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표 5와 같이 1학기 또는 여름 방학때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약물남용 동기로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시한 것처럼 76.5%가 유혹을 받았거나, 강요 당해서 약물남용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 중의 79.5%가 선배들 유혹에 의해 약물 남용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남자의 3.8%가 유기용제의 흡입만이 아니라, 적육이

표 4. 최초의 약물 사용시기

| 학 년 | 도 수 (%) |
|----------|----------|
| 국민학교 3학년 | 2(3.9) |
| 국민학교 4학년 | 1(2.0) |
| 국민학교 5학년 | 5(9.8) |
| 국민학교 6학년 | 10(19.6) |
| 중 학교 1학년 | 21(41.2) |
| 중 학교 2학년 | 8(15.7) |
| 중 학교 3학년 | 1(2.0) |
| 잘모르겠다. | 3(5.9) |
| 합 계 | 51(100) |

표 5. 학기별 약물남용시기

| 학 기 | 도 수 (%) |
|-------|----------|
| 1 학 기 | 16(31.4) |
| 여름방학 | 11(21.6) |
| 2 학 기 | 7(13.7) |
| 겨울방학 | 1(2.0) |
| 3 학 기 | 7(13.7) |
| 봄 방 학 | 2(3.9) |
| 모르겠다. | 7(13.7) |
| 합 계 | 51(100) |



라고 알려져 있는 수면제, 마리화나, 아편, 코카인 등 다른 약물까지도 남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자의 경우가 30.0%로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시작한 자들은 남용 패턴 중에서 매일 수회 남용하는 형에 속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지금까지

지 약물을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좋은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에게 유혹을 받아서가 15.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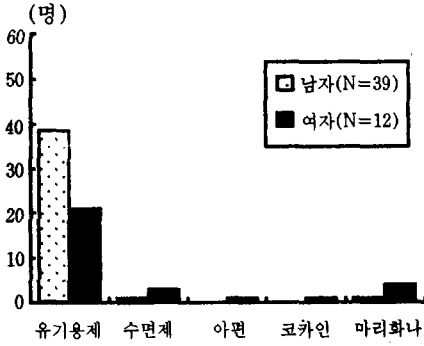


그림 4. 남용한 약물명 (복수회답)

전술한 것처럼 남용중학생과 남용교직원생 공통으로 낮은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용교직원생군이 남용중학생보다 득점이 높은 것은 교직원 내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남용 개시 시기 전에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동시에, 유혹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가족 관련 문제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문제 가족에 대한 외부에서의 개입과 접근(approach)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약물남용 개시 연령에 있는 중학생 연령군을 1,106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약물남용 예방 대책을 세우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1993년 7월 부터 동년 11월까지 실시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용·비남용자군의 비교 분석으로부터, 가족 내의 인간 관계의 빈약성은 약물남용의 길로 들어가기 쉽게 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고 예측되어진다.

또한,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남용중학생보다 교직원생군이 높은 것은 교직원 내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시사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2. 남용교직원생의 면접 결과로부터, 국민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때, 선생의 유혹에 의해 처음에는 유기용제의 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각성제, 아편, 마리화나, 수면제 등과 같은 다른 약물까지도 남용하게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3. 이러한 점들로부터, 국민학교 고학년의 1학기 또는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에 대한 어프로치(approach)를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중학생의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족에의 개입 방법과 접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Linder R. L., Lerner S. E., Wesson D. R.: Solvent sniffing a Continuing problem among youth, *J Drug Ed.* 4, 469-473, 1974.
2. Glaser H. H., et al.: Glue-sniffing in children, *JAMA*, 181, 300-303, 1962.
3. Jacobziner H., Roybin H. W.: Glue sniffing, *New York State J Med*, 62, 3294-3296, 1962.
4.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犯罪白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35-36, 1986.
5.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犯罪白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287-290, 1986.
6. 石川稔生: 現在問題となっている依存性藥物の種類とその藥理作用, *學校保健研究*, 33(7), 302-312, 1991.
7. 永野潔: 有溶劑亂用—その展望と治療的介入に

- ついて一, 臨床精神醫學, 17, 1013-1025, 1988.
8. 原田幸夫, 小沼杏坪: 薬物乱用と健康, 梶橋出版, 1992.
 9. 原田幸男: 薬物乱用豫防教育の實態その1-保健の科學, 33, 873-877, 1991.
 10. 和田清, 福井進, 他: 薬物依存と人格障害-性格特性の観点から-臨床精神醫學, 19(10), 1493-1500, 1990.
 11. 小田晋: 有機溶剤依存の臨床, 大原・田所編, アルコール・薬物依存-基礎と臨床-所収, 金原出版, 東京, 386-393, 1984.
 12. 洲脇寛, 西井保行, 吉田健男ほか, 自動相談所を訪れた有機溶剤乱用少年の背景と予後, アルコール 研究と薬物依存, 17, 74-86, 1982.
 13. 洲脇寛: 有機溶剤・覚醒剤の乱用, 臨床精神醫學, 11, 955-963, 1982.
 14. Moos, R. H., & Moos, B. S.: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 *Family Process*, 15, 357-371, 1976.
 15. Moos, R., & Max, W.: *The Social Climate Scale: An annotated bibliography*, (2nd Ed.),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9.
 16. Moos, R. H., & Max, W.: *The Social Climate Scale, A users's guide*,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87.
 17. Coopersmith, S.: A Method for determining types of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171-180, 1959.
 18. 河口てる子, 川田智恵子, 他: 中學・高校生における家族環境尺度日本版の信頼性・妥当性の検討-MoosのFamily Environment Scale-, 學校保健研究, 35, 254-264, 1993.
 19. 野口裕二, 齊藤學, 他: FES, 家族環境尺度・日本版の開発: その信頼性と妥当性の検討, 家族療法研究, 2, 147-151, 1991.
 20. 菅佐和子: SE(Self-Esteem)について, 看護研究, 17(2), 117-123, 1984.
 21. Bennett, L. A., Sorensen, D. E. and Forshay, H.: The application of Self-Esteem measures in a correctional setting: 1. Reliability of scale and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J.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8, 1-9, 1971.
 22. Ziller, R. C., et al.: A self-social constru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84-95, 1969.
 23. Lyell, R. G.: Adolescent and adult self-esteem as related to cultural values, *Adolescence*, 8, 85-92, 1973.
 24. Jones, N. B.: Self and interpersonal evaluation: Esteem theories versus Consistency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79, 185-199, 1973.
 25. Kokenes, B.: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Adolescence*, 13, 49, 149-155, 1978.
 26. 末永俊郎: 社會心理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87.
 2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 Press, 1965.
 28. Janis, I. L.: Effects of fear arousal on attitude change, Berlowts, L. (Ed.),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experimental research*,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1967.
 29. 河口てる子: 思春期におけると糖尿病患者の自尊心・家族環境と糖尿病コントロールの関係, 博士論文, 1991.
 30. Kosten, T. R., Novak, P. & Kleber, H. D.: Perceived marital and family environment of

- opiate addict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0, 491-501, 1984.
31. Stern, S.: Family environment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8, 25-31.
 32. 齊藤學: 家族環境尺度 Family Environment Scale 得点と子供の情緒・行動障害かち見た日本のアルコール問題家族の特徴, 2, 449-460, 1992.
 33. 伊籾 富士江: 少年のシンナー等への依存度と家庭内問題との関連, *科学警察研究所報告判事少年編*, 28, 1987.
 34. 藤岡淳子: シンナー一常少年の家族関係について, *犯罪心理學研究*, 29, 84-85, 1991.
 35. Leff, J., Vaughn, C.: *Expressed Emotion in Families*, Guilford Press, 1985.
 36. 柴田洋子, 高橋神吾: 多剤依存とその背景, *臨床精神醫學*, 17(7), 1039-1044, 1988.

<Abstract>

Preven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rs
among Jap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A comparative study of drug users and non—drug users

Hak Oh

(Dept. of Health Sociology School of Health Sciences and Faculty of Medicine
The University of Toky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and compar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rs with non—drug abusers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Japan through a closed format questionnaire. The same questionnaire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used in order to find the circumstances of drug abuser among Kyogoin(a sort of child welfare institution) students in Japan.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preventive education of drug abuse through the two investigations mentioned above.

Between July 1993 and November 1993, the information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964 students from 4 junior high schools, and also 142 students from 3 Kyogoin in Japan. A total of 1106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resulting in a following response rate of 90.4%.

Information was based on the scales : family relation scale, school life scale, recognition on danger of drug abuse scale, family environment scale (Moos, 1986), self 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67), etc.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Drug abusers are more likely to lake communication in their families and have poorer human relations than non-drug abusers. Also their school life scores tended to be lower non-drug abusers.
2. It was between their 6th year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first of Junior high school when the drug was first used. The drug of choice which they made their first attempt at using was a volatile solvent which was inhaled. It is likely that this drug is “gateway-drug” for adolescents in Japan because they then also tried other drugs (e.g. cocaine, marijuana, etc.) step by step.
3. It is therefore clearly important that greatly increasing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drug abuse before the summer vacation of the first term of the sixth year of elementary school. At the same time, intervention in the family will have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in Japan, as well.